

요약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대상인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단계 구조임.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따라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연금제도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음.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수급액을 늘리겠다는 것과 후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임. 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부담이 피보험자와 사업주에게 전가되며, 국고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대상인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단계 구조임¹⁾
 - 1단계는 20~59세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으로, 학생, 프리랜서, 자영업자, 주부 등이 그 대상임
 - 국민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단계는 직장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유족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금액에 후생연금 금액을 추가하여 수급함
 -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²⁾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6,980엔이며, 후생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18.3%로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납입함
 -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노령기초연금의 연간 급여액은 816,000엔(한화 약 709만 원)임
-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따라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연금제도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음³⁾
 - 일본 정부는 5년 주기로 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 실시한 검증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의 미래 급여 수준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4년 중 실시될 재정검증을 통한 추계 결과를 내년 연금제도 개혁에 활용할 예정임
 -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현역 세대의 감소와 노인과 여성의 노동률 증가 및 근로 유형의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임⁴⁾

1) TIPS(東京都多文化共生ポータルサイト)(https://tabunka.tokyo-tsunagari.or.jp/useful/guide_kor/pension/01.html)

2) 日本年金機構(2024. 4. 1), "National Pension System"

3) The Asahi Shimbun(2024), "Ministry panel starts work for vital reform of pension system"

4) CASIO(2024), "年金制度の改正ポイントを徹底解説"

-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⁵⁾은 1.26으로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미래 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현역 세대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노인과 여성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연금제도에 긍정적인 현상이나, 고령자 및 단기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취업한 노인 및 여성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수급액을 늘리겠다는 것과 후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임⁶⁾

- 첫 번째 안은 현행 국민연금 납부 기간인 40년(20~59세)을 45년(20~64세)로 연장하는 안으로, 향후 연금액이 연간 약 10만 엔(한화 약 86만 원) 증가하고 보험료는 총 100만 엔(한화 약 857만 원) 인상됨
 - 2019년 실시한 재정검증에서 연금을 45년 납부했을 경우의 급여 수준 추정치의 소득대체율이 6.8%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⁷⁾
- 두 번째 안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안으로, 현행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에서 2024년 10월부터 51명 이상으로 확대되며, 점차 규모 요건을 폐지할 예정임
 - 또한, 가입 면제 대상인 숙박업·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후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 중임
- 이외에도 보험료 기준액의 상한을 인상하는 안, 재직노령연금의 감액분을 완화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재직노령연금제도는 후생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임금과 연금을 합쳐 월 50만 엔(한화 약 450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로, 고령자가 취업해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⁸⁾

○ 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부담이 피보험자와 사업주에게 전가되며, 국고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음⁹⁾

- 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은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 후생연금 가입 확대는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단기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계에서는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개혁으로 인해 총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고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음

5) 15~49세인 여성이 평생에 평균 몇 명의 아이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어머니의 연령별 출생 수를 해당 연령의 여성 인구로 나눈 값임
 6) The Mainichi(2024), "Editorial: Discussions on Japan pension reform must respond to anxiety about future"; 日本經濟新聞社(2024), "厚労省、年金改革へ5案検証 パートほぼ全員加入案など";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2023), 「일본 연금 개혁: 오래 내고, 늦게 받고, 보호막은 두텁게」
 7) The Asahi Shimbun(2024), "Ministry panel starts work for vital reform of pension system"
 8) 日本年金機構(2022. 4. 1), "在職中の年金 (在職老齢年金制度)"; 내일신문(2024), "일본 연금 납부기간 최장 45년으로 연장"
 9) 日本經濟新聞社(2024), "厚労省、年金改革へ5案検証 パートほぼ全員加入案など"